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검색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윤 정 원 (JungWon Yoon)\*\*

###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검색엔진을 사용한 정보검색행위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1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3가지 검색 태스크에 포함된 6개의 검색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였으며, 각 태스크 별로 사전 설문지 작성, 검색 수행, 사후 설문지 작성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검색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검색성과와 검색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한국어의 유창성이 높은 참가자들의 검색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지식이 검색성과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와 링크를 통하여 웹사이트를 탐색해서 답을 찾는 태스크의 경우, 정답이 포함된 웹페이지 앞에서도 정답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오답을 찾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영어권인들이 탐색하기에 용이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양방향 소통 수단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international students' web search behaviors. During the experiment, fifteen international students were asked to conduct three search tasks which includes six search ques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earch task, there were differences in search performance and search behavior. It was commonly found that participants with higher Korean fluency showed higher search performance; however, prior knowledge about the search topic did not always affect the search performance. In the search tasks that required navigation through menus and links within one web domain, participants often overlooked the correct answers, even if they were at the webpages containing the correct answer. Also, some participants did not realized that they found wrong answers. For enhancing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mong foreigners in Korea,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1) to design websites which are easy for non-native speakers to navigate, and 2) to use social media as a means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키워드: 외국인 유학생, 정보검색행위, 웹검색, 비모어 검색, 검색성과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Web Search, Retrieval in Non-native Language, Search Performance

\*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yoon@jbnu.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259-277,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259>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유학생 숫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115,927명에서 2019년 180,131명으로 3년간 약 55%의 증가를 보였다(법무부, [발행년불명]).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8.8%(120,018명)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성규, 2021). 학령인구의 감소로 국내 대학생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견되는 바이다. 따라서 학업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이주자들)과 유학생들은 본국을 떠나와서 한국의 낯선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유학생들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도 있다. 즉,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한국에 거류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나이가 젊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이민자 그룹에 비해 유학생들은 현지어(영어)의 유창성이 높으며, 정보추구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 Yoon, 2015; Sin & Kim, 2013; Yoon & Chung, 2017). 그러나,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위 연구에서는 언어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큰 장애로

보고되었다(윤정원, 2022).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네트워크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도 또한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은 그들에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Sin & Kim, 2013).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서, Ishimura과 Bartlett(2014)과 Sin과 Kim(2018)은 유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생들과는 구분되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하여 한 연구로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원, 장애물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황리헬, 2019; Alzougol et al., 2013; Bukhari et al., 2018; Chung & Yoon, 2015; Mehra & Bilal, 2007; Sin & Kim, 2013), 특히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추구행위를 살핀 연구들도 있다(윤정원, 2022; Yoon & Chung, 2017).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요구를 가졌을 때, 웹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어떻게 정보검색행위를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주로 설문지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밝힌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는 유학생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생활에의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Wilson(1999)의 정의에 따라, 정보검색(information search)을 정보추구행위(information seeking behavior)보다 좁은 범위로써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정보탐색행위로 규정하였다. 즉, Case와 Given(2016)이 정의한 정보추구행위(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보를 입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와 정보행위(information behavior: 정보추구를 포함하여 비의도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의 행위까지도 포함)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RQ1: 검색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행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 RQ2: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RQ3: 검색언어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2. 선행연구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대학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박은명, 이정규, 오동근(2015)은 국내 5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

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홈페이지 언어지원, 도서관 이용 및 시설에 관한 안내자료, 이용자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음을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도서관 포털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한 이수상(2009)은 모국어로 된 참고서비스와 웹페이지, 정보활용 교육 등에 관한 요구가 있다고 조사하였다. 이지옥, 이용재(2020)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서비스 현황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담사서를 통한 다국어서비스 제공', '외국인 맞춤형 이용자교육', '외국인 특성화 서비스 개발', '도서관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등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로,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도서관 불안요소를 조사하였는데, 한국어 능력이 낮고 문화적 이질감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도서관 이용빈도와 도서관이용교육이 도서관 불안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유지윤, 정동열(2020)은 대학도서관 외국인 이용자(학생, 교원, 연구원)의 도서관 불안을 분석하였는데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언어장벽이 도서관 불안과 높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신분, 국적, 이용교육 참여 여부, 방문목적, 한국문화 이해도 등이 도서관 불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이용교육인데, 이현실과 황동렬(2007)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진행한 정보이용교육이 교육적 효과가 있음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이 밖에 조용완, 이수상(2010)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리터러시수준을 자가진단하도록 하였는데, 유학생들은 스스로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황리헬(2019)은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 및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 행태(정보요구, 정보원, 정보원 평가)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윤정원(2022)은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요구, 정보원, 정보추구과정의 어려움 등의 정보추구행위를 조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국내 연구 중,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될 수 있는 웹 검색행위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이수상(2009) 연구로부터, 검색에 관한 지식 부족과 언어 장벽이 도서관 포털 이용의 주요 어려움이라는 점이 웹 검색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윤정원(2022)이 결정적 사건기법을 사용하여 일상생활과 학업 전반에 있어서의 정착단계별 정보추구행위를 연구한 결과로부터, 언어의 문제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며 웹브라우저의 번역기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탐색한다는 점, 정착초기단계일수록 일방향인 웹사이트 보다는 쌍방향 정보원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 유학생들은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과 함께, 특화된 웹사이트(카카오맵, 쿠팡, 취업관련맵) 등의 정보원도 활용한다는 점 등을 국내 외국

인 유학생 웹탐색의 배경 정보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비모어(non-native language)를 사용한 웹 검색행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심원식, 안혜연, 변제연(2015)은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소요시간, 답의 정확도, 검색횟수, 사용한 검색엔진, 검색언어 등의 검색성과와 검색행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검색 언어의 차이에 따른 검색 성과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검색행동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어와 영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검색 전략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질문의 특성에 따라 검색엔진을 달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연(2018) 역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정보검색행위와 영어 정보검색행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어로 검색을 수행할 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어로 검색할 때에 비해 한국어로 검색할 때, 다양한 출처를 통해 검색어를 생성하고, 검색범위가 넓고 검색페이지 내에서의 탐색이 보다 전반적이고 다양하며 다수의 아이템을 비교한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영어 검색은 한국어 검색에 비해 수동적, 소극적이며, 사전이나 번역기 같은 언어지원도구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구는 국내에 비하여 활발하지만, 해외의 연구 역시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Hertzum &

Hyldegård, 2019),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검색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도서관 OPAC 시스템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탐색에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장애물에 관한 내용을 관련 연구로서 살펴볼 수 있겠다. Mehra와 Bilal(2007)은 검색엔진, 인터넷, 도서관 웹사이트, OPAC, 데이터베이스 등의 사용에 관한 유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이 중 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에 관하여, 다국어 인터페이스 부재, 검색기술의 부족과 검색어를 생성 능력 부족, 정보이해의 부족, 관련성이 낮은 검색결과와 검색 결과의 산재,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한 시간 소요,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검색 요소의 다양성 부족 등을 보고하였다. Sin과 Kim(2018)은 미국의 자국 출신대학생과 유학생들 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를 비교하였는데, 정보추구의 어려움에 관하여 정보의 관련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상호상충, 시기적으로 오래된 정보 등이 두 그룹에서 모두 높은 순위(1-4위)를 차지했다. 반면, 유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자국민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5-10위 안의 항목들은 정보의 질 평가, 접근 가능한 정보원을 모름, 검색소요시간, 검색결과가 너무 많음, 어떠한 검색어를 써야 할 지 모름 등이 있다. 10위 이후의 항목으로서, 유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자국민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항목들 중에는 어떤 정보원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름,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등이 포함되었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와 해외연구를 비교할 때 해외의 유학생들은 언어장벽을 큰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국내

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언어장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행위에 관한 연구는 대학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정보요구, 정보원, 어려움) 등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검색행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요구를 가졌을 때 어떠한 웹 검색행위의 특성을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J 대학 유학생 커뮤니티에 연구모집 광고를 통해 모집된 1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과 11월에 수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였다. 검색행위 실험에 앞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인구학적 정보(나이, 성별, 현 학위과정, 전공, 출신국가, 모국어, 한국거주기간, 영어와 한국어의 유창성) 및 디지털 기기 소유 및 사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검색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3개의 검색 태스크를 사용하였다. 각 태스크 별로는 2개의 질문, 총 6개의 질문을 검색행위 실험 과정에 사용하였다. 3개의 태스크는 다양한 검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검색 태스크 I과 검색 태스크 II는 각각 특정한 하

〈표 1〉 검색 태스크와 검색 질문

검색 태스크/검색 질문*	검색 질문 종류	답안 제공 도메인	답안 제공 도메인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 태스크 I: OO대학교** 일반대학원(외국인 전형) 2022년 전기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1) 입학원서 접수날짜는 언제입니까? 2)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종류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찾으십시오.</li> </ul>	사실정보검색	1	한국어/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 태스크 II: 얼마 전에 삼성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스크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XX[지역]***에 있는 삼성 서비스센터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무엇입니까? 2) 챗봇 상담을 할 수 있는 삼성공식웹사이트를 찾으십시오.</li> </ul>	사실정보검색	1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 태스크 III: 황사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찾으십시오. 1) 한국에서 황사는 언제(몇 월에) 주로 발생합니까? 2)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li> </ul>	탐색질문	다수	한국어/영어

\* 검색 태스크와 검색 질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되었다.

\*\* 본 연구 참가자들이 소속되지 않은 대학을 선정

\*\*\* 참가자들의 소속대학이 있는 지역

나의 웹 도메인을 통해 단편적인 사실을 검색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는 태스크로 구성되었고, 검색 태스크 III은 특정한 웹 도메인이 아닌 다양한 웹 도메인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1개의 웹 도메인이란 동일한 2차 도메인(example.edu) 또는 3차 도메인(example.ac.kr)에 소속된 도메인들로서, 예를 들어, scholarship.example.ac.kr, eng.scholarship.example.ac.kr, example.ac.kr/eng/scholarship.jsp는 모두 example.ac.kr이라는 하나의 웹 도메인에 소속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실정보검색을 위한 2개의 태스크 중 검색 태스크 I은 한국어와 영문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웹 도메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태스크인 반면, 검색태스크 II는 한국어 웹사이트만 제공하는 웹 도메인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태스크였다.

본 실험은 13인치 모니터를 가진 노트북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실험시작 전

에 네이버(naver.com)와 구글(google.com) 탭을 열어놓은 마이크로 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한번의 실험이 끝날 때 마다 웹 브라우저의 검색이력과 쿠키 등을 삭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앞선 참가자들의 검색 이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한국어 웹사이트인 경우 웹 브라우저의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설정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한글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3가지 검색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 각 검색 태스크 별로 1) 사전 설문지 작성, 2) 검색수행, 3) 사후 설문지 작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검색태스크 별로 연구 참가자는 검색 태스크와 검색 질문 2개가 영문과 국문으로 쓰여진 제시문을 받았다. 제시문을 읽은 연구 참가자는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전 설문지는 영문 또는 국문 중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언어로 된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사전 설문지에는 검색주제에 관한 기존의 지식 또는 경험, 검색 주제에 관한 흥미도, 예상되는 검색과정의 용이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사전 설문지를 작성한 연구 참가자는 주어진 검색을 수행하여 답을 찾았고, 답안을 기록하였다. 답안 기록 후에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된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사후 설문지에서는 검색과정의 용이성, 검색과정 중 스트레스 정도,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사전 설문지, 검색, 사후설문지의 과정이 검색 태스크 별로 진행되었다. 검색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zoom을 사용하여 녹음되었다.

zoom(Zoom)으로 녹음된 검색행위는 연구자에 의하여 <표 2>에서 보여주는 요소에 따라 코딩되었다. 검색성과로는 정답율과 검색소요시간

을 분석하였고, 검색행동으로는 검색횟수, 총방문노드수, 검색어로 사용한 언어, 검색결과 언어, 번역기 사용 여부, 사용한 검색엔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요소들은 심원식, 안혜연, 변제연(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4. 결과분석

### 4.1 참가자 배경 정보

본 연구 참가자 15명 중 남자가 10명(67%)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13명(87%)은 20대, 2명(13%)은 30대였다. 학부생 7명(47%),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각각 4명(27%)이었으며, 9명(60%)의 참가자가 공과대학 소속이고, 생명과

<표 2> 검색행위 분석 요소

구분	항목	정의
검색성과	정답율(%)	검색 질문별로 정답을 찾았을 경우에 100%를 부여하고 찾지 못했을 경우 0%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태스크 I에서 2개의 질문 모두 맞추면 평균 100%, 한 개만 맞추면 평균 50%, 둘 다 틀릴 경우 평균 0%로 계산하였다.
	검색소요시간(초)	첫 검색어 입력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각 태스크의 2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제시한 시점까지의 총 소요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검색행동	검색횟수	실험 참여자가 검색어(질의어)를 통해 검색한 횟수를 계산하였다.
	총 방문노드 수	초기 검색화면을 제외한, 검색결과페이지(SERP) 및 웹페이지의 총 방문횟수로서, 동일한 검색결과페이지와 웹페이지의 재방문인 경우에도 총 방문노드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SERP1 → website 1 → website 2 → SERP1 → website 3를 방문한 경우, 총 방문노드 횟수는 5개로 계산되었다.
	검색언어	검색하는 과정에 사용한 언어로, 영어, 한국어, 영어/한국어, 영어/모국어로 구분되었다.
	검색결과언어	검색 과정에서 찾은 검색결과페이지 및 웹사이트의 언어로, 영어, 한국어, 영어/한국어, 영어/모국어로 구분되었다.
	번역기 사용	검색과정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웹브라우저 번역기(예, 구글 웹브라우저 번역기) 또는 번역사이트 등을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한국어를 영어 또는 모국어로, 영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검색엔진	검색 과정에서 사용한 검색엔진으로, 실험 시작 시에는 구글과 네이버가 오픈되어 있었다.

학/의학(2명, 13%), 교육대학(2명, 13%), 사회과학대학(1명, 7%), 예술대학(1명, 7%) 소속의 참가자가 있었다. 출신지역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13명(87%)이었으며, 유럽(1명, 7%)과 아프리카(1명, 7%) 출신의 유학생들이었다.

한국체류기간으로는 1년 미만 3명(20%), 1년 이상-3년 미만 8명(53%), 3년 이상 4명(27%)이었다. 영어와 한국어의 유창성에 관련하여, 유학생들은 한국어보다 영어의 유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73%의 학생이 영어를 모국어, 매우 잘함, 잘함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33%만이 매우 잘함 또는 잘함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어의 경우 모국어(3명, 20%), 매우 잘함(5명, 33%), 잘함(3명, 20%), 보통(2명, 13%), 잘 못함(2명, 13%)이었으며, 한국어의 경우 매우 잘함(1명, 7%), 잘함(4명, 27%), 보통(2명, 13%), 잘 못함(4명, 27%), 매우 못함(4명, 27%)이었다.

디지털기기 소유현황으로는 스마트폰은 15명 전원이 가지고 있었으며, 노트북(14명, 93%), 태블릿(5명, 33%), 데스크탑(5명, 33%)을 소유했으며 전자책리더기를 소유한 참가자는 없었다. 디지털 기기 하루 사용시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15시간 이상(4명, 27%), 10-15시간(3명, 20%), 5-10시간(7명, 47%), 2-5시간(1명, 7%)이며,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참가자는 없었다. 즉, 14명(93%)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15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은 태스크 I과 II를 마친 후 태스크 III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모든 태스크를 마쳤으나, 태스크 I만 기록이 되었다. 따라서, 태스크 별 분석 대상 참가자의 수는 태스크 I(15명), 태스크 II(14명), 태스크

I(13명)이다.

#### 4.2 검색 태스크의 특성에 따른 검색행위

〈표 3〉은 검색 태스크 별 사전 사후 설문 결과 및 검색행위를 보여준다. 첫째, 검색행위 전후의 각 검색 태스크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검색 태스크 별 사전 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태스크 I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 주제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높았으며, 검색과정의 용이성 역시 가장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태스크 I은 대학원 입학에 관련된 검색 태스크였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경험이 있는 익숙한 주제이며 예상 검색 용이성도 쉬울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반면, 황사와 관련된 태스크 III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가장 낮았으며, 검색 용이성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 검색을 수행한 후 진행된 사후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태스크별 예상되는 검색 용이성(사전설문)의 순서와 실제 검색 후의 용이성(사후설문)의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사후 설문의 검색 용이성 모두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과정의 스트레스와 검색결과의 만족도 역시 검색 용이성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어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태스크에 있어서 사후 설문 결과에서 보여주는 검색 용이성은 예상 검색 용이성보다 더 용이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검색 전보다 실제 검색행위를 한 후에, 검색 과정에 대해 더 용이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검색태스크 별 사전/사후 설문 결과 및 검색성과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
사전 설문	검색주제에 관해 기존의 지식 또는 경험 (5:매우 많음 - 1: 전혀 없음)	3.60	2.47	1.40
	검색주제에 관한 흥미 (5:매우 많음 - 1: 전혀 없음)	3.67	3.00	3.00
사후 설문	예상되는 검색과정의 용이성 (5:매우 쉬움 - 1: 매우 어려움)	3.67	2.87	2.40
	검색과정의 용이성 (5:매우 쉬움 - 1: 매우 어려움)	4.07	3.00	2.67
	검색과정 중 스트레스 (5:전혀 없음 - 1: 매우 심함)*	4.27	3.40	2.87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 (5:매우 만족 - 1: 매우 불만족)	4.27	4.07	3.53
정답율(%)		76.67	78.57	84.61
검색소요시간(초)		188.27	210.85	282.61
방문노드(개수)		9.93	9.43	8.46
검색횟수		1.67	2.50	3.00
검색언어	영어	9	5	8
	한국어	4	5	4
	영어/한국어	1	4	1
	영어/모국어	1	0	0
검색결과언어	영어	8	6	8
	한국어	4	4	4
	영어/한국어	1	4	1
	영어/모국어	2	0	0
번역기 사용	횟수	2	5	1
검색엔진	구글	11	10	11
	네이버	2	2	1
	url	2	1	0
	구글/네이버	0	1	1

\* 역코딩(Reverse) 문항

둘째, 검색성과와 사후 설문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사전 사후 설문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반면, 사후 설문 결과와 실제로 측정된 검색행위를 비교해 보면, 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실제 검색성과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색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정답율과 검색소요시간을 이용했는데, 검색소요시간의 경우 사후 설문에서의 검색과정의 용이성

및 결과의 만족도와 일관되게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검색과정이 용이하고 결과 만족도가 높은 태스크일수록 검색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답율에 있어서는 태스크 III의 정답율이 태스크 I과 태스크 II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태스크 I과 태스크 II에서는 참가자가 오답을 제출한 경우가 태스크

III보다 많았기 때문에 정답율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찾은 답이 오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검색을 마무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태스크 I의 경우 OO대학교 대학원의 외국인학생 입학전형을 묻는 것이었으나, 특정대학이 아닌 일반적인 외국인학생을 위한 장학금, OO대학교의 특수 대학원 입학전형을 답으로 제시한 경우들이 있었다. 태스크 II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의 채팅 서비스가 아닌 해외의 서비스센터를 찾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났다. 오답율 이외에 정보의 간과도 나타났다. 즉, 검색 과정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웹 페이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검색행위(새로운 검색어, 다른 웹페이지 방문 등)를 하는 경우가 태스크 I, 태스크 II, 태스크 III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태스크 특성에 따라서 검색 행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웹 도메인 안에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태스크 I과 태스크 II의 경우는, 해당 웹사이트 안에서의 메뉴와 링크를 클릭하여 탐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러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 태스크 III의 경우에는 하나의 웹 도메인 안에서 탐색을 하기 보다는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고 검색소요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스크 특성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시에 사용한 언어와 검색결과를 읽는 데 사용한 언어를 보면 태스크 I과

III에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뒤를 이어 한국어가 사용되었다. 반면, 태스크 II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번역기를 사용한 경우도 다른 두 태스크에 비하여 많았다. 이는 태스크의 성격상 한국어를 사용할 때에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참가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영어로만 검색을 하고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해외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정보를 찾음으로 오답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태스크 II에서 한국어/영어를 함께 사용한 4명의 참여자들의 한국어 유창성을 보면, 2명은 보통, 2명은 못함으로 스스로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즉,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함에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검색해야 하는 태스크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스크 II의 검색행위 특징으로 1/3 정도의 참가자가 지도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였고, 페이스북의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태스크 특성에 따라 언어 사용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하는 검색엔진에 있어서는 태스크의 특성에 관계없이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 4.3 검색 주제에 따른 사전 지식 및 경험과 검색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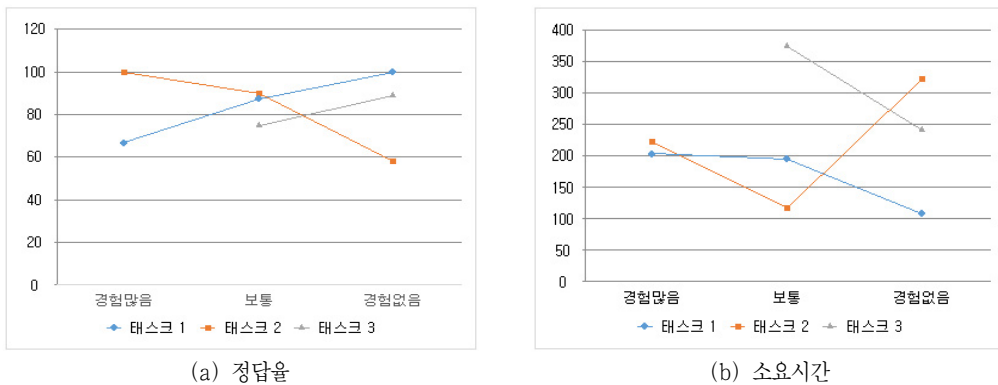
관련 주제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이 검색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태스크 I 과 III의 경우,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정답율이 높고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스크 II에 있어서는 경험과 사전지식이 많은 그룹의 정답율이 높고 검색 소

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관련 주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한국 거주기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한국거주기간과 검색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봤을 때에도 태스크 I 과 III의 경우, 거주기간이 긴 것과 검색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스크 II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답율이 높고 검색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검색 태스크의 성격에 따라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및 사전 경험이 검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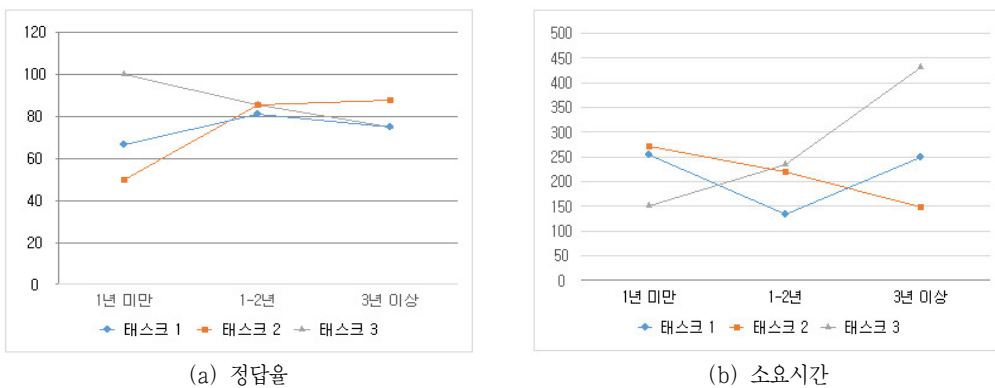
지만, 모든 검색태스크에서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 및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검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4.4 검색언어와 검색성과

검색태스크 별로 사용한 검색언어와 검색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태스크 I과 태스크 III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 참여자는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분석에서



〈그림 1〉 사전지식/경험과 검색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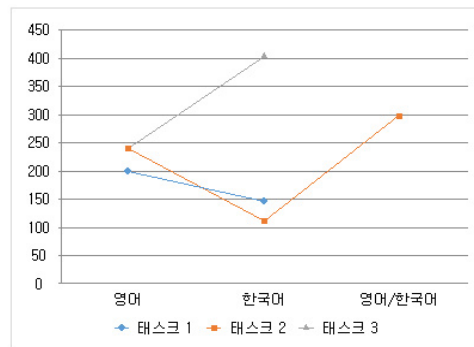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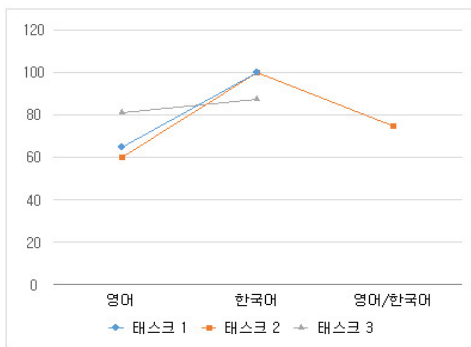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거주기간과 검색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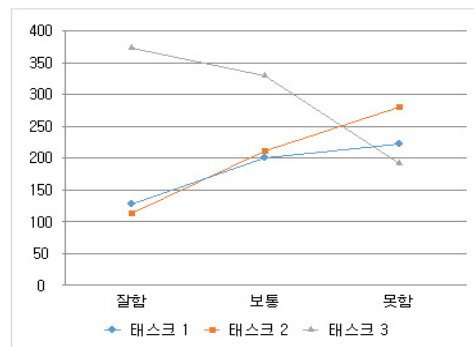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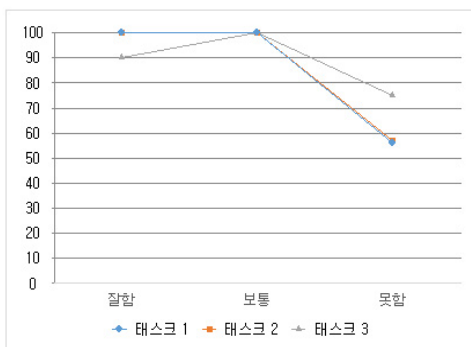
제외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태스크(I, II, III)에서 한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의 정답율이 가장 높았다. 소요시간의 경우 태스크 I과 태스크 II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의 검색시간이 가장 짧았으나, 태스크 III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의 검색시간이 길었다. 태스크 III의 경우에 웹사이트를 보다 면밀히 읽고 답을 찾아야 하는 태스크였음을 생각할 때, 영어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영어 유창성이 한국어 사용자들의 한국어 유창성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

한 참가자들이 한국어 웹사이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여겨진다.

검색과정에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 정답율과 검색시간에서 효율적인 검색을 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한국어의 유창성과 검색행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4> 참조).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잘 하는 경우에 정답율이 높았고, 검색소요시간에서도 태스크 III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잘 하는 경우에 소요시간이 짧았다.



<그림 3> 태스크별 검색언어와 검색성과



<그림 4> 한국어 능력과 검색성과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검색 태스크를 부여한 후 그들의 웹 검색 엔진을 사용한 정보검색행위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정보검색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구글과 네이버의 두 가지 검색엔진이 주어졌을 때, 구글을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윤정원(2022)이 결정적사건기법을 사용하여 국내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를 조사했을 때, 유학생들이 검색엔진으로 구글과 함께 네이버를 언급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구글은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국가에 따라 자국검색엔진만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함)이 본국에서부터 접했던 친숙한 검색엔진이기,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첫번째로 선택한 검색 엔진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정보를 검색해야 할 때는 하나 이상의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윤정원(2022)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는 구글맵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 같은 한국용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국내 대학생에 대상으로 비모어검색행위를 조사한 연구(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에서 구글과 네이버가 함께 사용된 것보다도 비교해 볼 때, 유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친숙한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 유창성에 따른 검색어 선택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보다 영어가 더 유창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특성인지 본 연구 참가자의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로부터는 다음과 같다. 영어로 된 정보원이 있는 경우(태스크 I과 III), 영어가 한국어보다 유창한 참가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였다. 그러나 태스크 II와 같이 한국어 정보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여 검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한 참가자들 중에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을 잘 못한다고 평가한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본인의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 검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스크 II의 경우,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만 검색을 한 참가자는 정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셋째, 검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봤을 때, 한국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한 참가자들과 한국어의 유창성이 높다고 자가 평가한 참가자들의 검색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어 웹사이트만 존재하는 태스크 II 뿐만 아니라, 영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었던 태스크 I과 태스크 III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영문 웹사이트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영어로 수행한 검색성과가 한국어 검색성과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태스크 II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여 사용한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검색 성과 역시 한국어만을 사용한 참가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한국어 유창성이 좋지 않음에도 태스크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검색의 이점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어 이외에 검색주제에 관련된 사전 지식 및 경험, 한국 거주기간과 검색성과와의 관계를 볼 때, 태스크 I과 태스크 III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태스크 II에서는 사전지식과 경험이 있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검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주제에 관한 사전지식이 검색어 생성과 검색결과 중 관련 정보 선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Dommès, Chevalier, & Lia, 2011; Sanchiz, Chevalier, & Amadiou, 2017)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것과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참가자들은 오답을 찾았지만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이미 정답이 포함된 웹페이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정보 간과) 새로운 검색을 시작하거나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 중 정보 간과는 언어와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정보검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의 중요성에 관하여 Dosso, Chevalier, Tamine(2020)은 정보요구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검색된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유학생과 자국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지만, 유학생은 자국민(원어민) 학생에 비해 약 50%의 독해 속도와 이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field, 1988; Liao, Finn, & Lu, 2007에서 재인용). 변제연(2018)이 국내 대학생의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한 검색행동을 비교한 결

과, 모국어를 사용했을 때 검색페이지 내에서의 탐색이 보다 전반적이고 다양하며 다수의 아이템을 비교한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대다수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독해력이 떨어지고 이는 정보검색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웹사이트 내의 메뉴와 링크를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하는 태스크(태스크 I과 태스크 II)에서 이러한 정답의 간과가 더 자주 발견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웹사이트 내의 메뉴와 링크를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추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오답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O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전형 입학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OO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전형을 찾는든지, 삼성전자의 한국고객을 위한 챗팅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데 미국지역의 고객센터를 찾는 등이다. 실제로 참가자들이 현실에서 동일한 정보요구를 가졌다면, 재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지역 고객 챗팅 서비스에 연락을 해보고 그것이 잘못 찾은 정보임을 알면 다시 정보검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입학전형을 찾은 경우,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 Yoon과 Chung(2017)은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의 대학 캠퍼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한 유학생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의 사회적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일방향의 웹사이트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미디어가 더욱 선호(윤정원, 2022; Bukhari et al., 2018; Sin & Kim, 2013; Yoon & Chung, 2017)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 정보검색행위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국내 이민자(이주민)<sup>1)</sup>를 고려할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내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보추구행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보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어의 사용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한국어를 잘 하고 한국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검색성과가 가장 좋았다.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첫째, 한국어 교육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로만 수업을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의 측면에서 취해야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자, 특히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인 유학생들은 영어나 한국어 중 하나는 어느 정도의 유창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외국인 중에는 한국어 영어 모두 유창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구글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번역기의 성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메뉴와 링크를 통해 탐색해야 하는 복잡한 웹페이지 내에서는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영어로 된 보다 간결하고 비영어민들이 쉽게 읽고 탐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도 자동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영어민들은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방향 소통 수단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국립대학으로부터 소수의 유학생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의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조금 감소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87%에 해당한다(법무부, [발행년 불명]). 2022 세계이주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2022)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세계적으로 이민자 신분에 있는 인구는 3.6%로서(McAuliffe & Triandafyllidou, 2021), 한국 내의 외국인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평균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웹 검색엔진을 사용한 정보검색으로 한정했다는 점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웹사이트와 함께 활발하게 사용되는 정보원으로, 웹사이트보다 정보원으로서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행위는 보다 전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웹검색행위를 탐색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유학생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관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성규 (2021. 8. 28.). [유학강국KOREA] 2021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한국유학저널.  
출처: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
-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C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13-332.
- 박은명, 이정규, 오동근(2015).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분석: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43-253.
- 법무부 [발행년불명]. 출입국통계. 출처: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변제연 (2018). 검색 언어가 웹 정보검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웹 정보검색행위의 양상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289-334.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289>
- 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 질의 언어 및 복잡성이 대학생의 웹 정보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51-73.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051>
- 유지윤, 정동열 (2020). 대학도서관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의 특성과 해소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21-4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21>
- 윤정원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추구행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27-45.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027>
- 이수상 (2009).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4(3), 191-217.
- 이지옥, 이용재 (2020).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K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81-302.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281>
- 이현실, 황동렬 (2007).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

- 학회지, 38(4), 145-165.
- 조용완, 이수상 (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75-99.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1.075>
- 황라헬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Alzougool, B., Chang, S., Gomes, C., & Berry, M. (2013). Finding their way around: International students' use of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Advanced Management Science*, 1(1), 43-49. <https://doi.org/10.12720/joams.1.1.43-49>
- Bukhari, S., Hamid, S., Ravana, S. D., & Ijab, M. T. (2018). Modell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ir use of social media in Malaysia.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23(4), paper 804. Available: <http://www.informationr.net/ir/23-4/paper804.html>(Archived by WebCite® at <http://www.webcitation.org/74LkZMkZ2>)
- Case, D. O. & Given, L. M. (2016).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4th ed.). UK: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Chung, E. & Yoon, J. (2015). An exploratory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uses. *The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9(1), 36-59. <https://doi.org/10.1353/ils.2015.0000>
- Dommes, A., Chevalier, A., & Lia, S. (2011). The role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vocabulary abilities of younger and older users in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the web.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5), 717-726. <https://doi.org/10.1002/acp.1743>
- Dosso, C., Chevalier, A., & Tamine, L. (2020). How to support search activity of users without prior domain knowledge when they are solving learning tasks?(hal-03172080) Available at: <https://hal.archives-ouvertes.fr/hal-03172080/document>
- Greenfield, L. W. (1988). Training library staff to reach and teach international students. *Reaching and Teaching Diverse Libraty User Groups*, 30-3.
- Hertzum, M. & Hyldegård, J. S. (2019). Information seeking abroad: an everyday-life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Documentation*, 75(6), 1298-1316. <https://doi.org/10.1108/JD-11-2018-0183>
- Ishimura, Y. & Bartlett, J. C. (2014). Are librarians equipped to teach international students? A survey of current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training.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0(3-4), 313-321. <https://doi.org/10.1016/j.acalib.2014.04.009>
- Liao, Y., Finn, M., & Lu, J. (2007).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Graduate

- Students vs. American Graduate Students: A User Study at Virginia Tech 2005.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1), 5-25. <https://doi.org/10.5860/crl.68.1.5>
- McAuliffe, M. & Triandafyllidou A. (2021). *World Migration Report 202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Geneva. Available:  
<https://publications.iom.int/books/world-migration-report-2022>
- Mehra, B. & Bilal, D. (2007).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information seeking strategies.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NA: CAIS/ACSI. Available:  
<https://journals.library.ualberta.ca/ojs.caais-acsi.ca/index.php/cais-ascii/article/view/233>
- Sanchiz, M., Chevalier, A., & Amadiou, F. (2017). How do older and young adults start searching for information? Impact of age, domain knowledge and problem complexity on the different steps of information search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2, 67-78.  
<https://doi.org/10.1016/j.chb.2017.02.038>
- Sin, S. C. J. & Kim, K. S.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07-116. <http://dx.doi.org/10.1016/j.lisr.2012.11.006>
- Sin, S. C. J. & Kim, K. S. (2018). How are we the same or different: information needs and barrie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4(6), 712-723. <https://doi.org/10.1016/j.acalib.2018.10.005>
- Wilson, T.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 Yoon, J. & Chung, E. (2017).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u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Libri*, 67(2), 119-128.  
<https://doi.org/10.1515/librl.2016-004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J.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search language on web searching behavior: Focused on the differences of web searching patter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289-334.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289>
- Cho, Y. & Lee, S. (2010).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75-99.

-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1.075>
- Hwang, R. (2019). A Study on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cculturation Type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ang, S. (2021, August 28). [Korea Study Abroa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2021. *Journal of Study in Korea*. Source: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
- Lee, H. & Hwang, D. (2007). A case study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ourse for foreign student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 and deman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45-165.
- Lee, J. & Lee, Y.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reign user services in academic library: Focusing on the K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81-302.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281>
- Lee, S. (2009).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services of digital library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14(3), 191-217.
- Ministry of Justice [n.d.]. Statistics on Immigration. Available at: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Nam, Y., Kim, G., & Choi, S. (2010). A research on library anxiet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CAU library us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13-332.
- Park, E., Lee, J., & Oh, D. (201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versity library services for foreign students: With special regard to the university libraries in Daegu and Gyeonbuk area. *Proceeding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243-253.
- Shim, W., Ahn, H., & Byun, J. (2015). Exploring the effects of task language and complexity in college students' web search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51-73.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051>
- Yoo, J. & Jeong, D. (2020). A study on traits and remedy of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users i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21-4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21>
- Yoon, J. (202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27-45.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027>

